

한 50년전 이야기다. 나는 어느 여류시인을 사랑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그녀는 한번 결혼했으나, 남편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나. 나하고 결혼하지도 않았으니 조용히 거절당했다. 그냥 친구로 지내자는 것이다.

6·25가 터졌다. 나는 한강을 건너가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로 다니던 서울중앙방송국에 들었다가 의용군에 강제로 끌려갔다. 도중에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왔다. 어디 숨어야 하는데 갈 곳이 없다. 문득 그녀가 혼자 살고 있는 집 생각이 났다. 달려갔다. 친절하게 맞아 주었다. 우리는 어려움없이 부부생활처럼 지냈다.

중공군 개입설이 나돌며, 나는 그녀를 혼자 케

##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동행복인

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소개해주고 팔레 부상으로 도망쳐 내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직장에 들어가 원래의 나와 생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한운사

그녀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을 때 나는 같이 있기를 꺼려했다. ‘개막지조선’이라고 이 나라를 저주하며,

## 젊은 날의 사랑과 후회

나는 발해 타락의 나라 바다에 떨어져 있었다. 다른 연상의 여인에게 아깝없이 모든 것을 바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파란 수도 길바닥에서 울며 매달리는 그녀를 뿌리친 나. 어디서 그런 잔인한 용기가 생겼는지 모른다.

수복이 되고 세월이 가고 나는 여자와 결혼이라는 것을 했다. 우연히 서울 길바닥에서 그녀를 만난 적이 있다. 가난해 보였다. 도와주지 못했다. 다소의 명성은 얻었지만, 내겐 돈이 없었다.

활빈 뒤 어디서 또 만났다. 스님이 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일생을 망친 나라는 인간의 변변스러움에 새삼 놀랐지만 그 때도 도와주진 못했다.

세월이 흘러갔다. 어떤 그 소식조차 아는 이가 없다.

한마디 원망도 안하던 바다와도 같은 그 너그러움. 좌불우석에서 ‘인간을 사랑하라’고 외치는 것은 나의 위선인가.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것만 같다.

〈작가〉

# “세계일화 한몫 하겠어요”

주한 외국인스님 첫 연수 32명 동참... 조계종 매년 개최할 듯

“차 한잔에도 이토록 깊은 의미와 예법이 있구나...”

외국인 스님 32명은 차와 맛을 즐기며 불교 체험한 한국불교에 대해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다. 외국인스님들의 푸른 눈동자는 강령으로 이어지는 일주문에서도 무엇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열의로 가득 찼다.

5~7일 3일간 순천 송광사(주지 현고)에서 주한 외국인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가 조계종 교육원(원장 안도) 주최로 열렸다. 외국인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불교를 배우는 것은 한국불교사상 처음의 자리였다.

연수회에는 화계사 국제선원, 연동국제불교회관, 송광사, 팔공사, 미국 홍방의 소속의 비구 26명, 비구니 6명 등 모두 15개국 32명의 외국인스님이 참가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해일스님, 정계대화상 참하스님 등 종단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입학식에서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한국불교 조계종단의 정통수행법을 익히고 자긍심을 고취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홍보하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수회는 주로 강의로 이뤄졌다. 포살, 참선실수, 소참법문, 다도강습,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슬라이드 상영 등. 다도강습과 슬라이드 상영이 가장 호



◇ 처음으로 열린 주한 외국인스님 연수회가 32명이 동참한 가운데 송광사에서 성료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응도가 높았다. 한국불교는 인간심성과 자연에 가장 가까운 훌륭한 가르침이 담겨있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번 연수회는 외국인스님들에게 수행정통 및 교학세계 등 한국불교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 한국불교를 홍보하는데도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원은 “반응이 좋아 정기적 개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승정사=한영우 기자)

## 조계종 내년예산 2백5억원 책정

작년비해 33% 증액

조계종이 내년에도 포교, 승가교육, 대사회활동, 불교문화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최초로 2백억원 규모를 넘어선 조계종 내년 예산중 순수일반회계의 약 60%가 이같은 사업에 쓰여질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조계종이 제 129회 정기중앙총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확인됐다. 조계종의 내년예산안의 규모

는 총2백49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승가교육과 포교예산이 올해보다 각각 22.3%, 26.5% 상향조정된 34억6천만원과 18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조계종의 내년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중앙본당금과 특별본당금을 동원해 본당의 부담을 줄인 한편, 직영, 관할묘, 미수분당금을 소폭 인상해 전체적으로 3.3%의 인상을 보이고 있다. (관원기사 3면)

## 갑사 토지수용 강행 ‘또 물의’

마곡사 본말사, 내무부에 철회요청 성명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토지수용계획은 변함이 없다.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회신을 보내는 등 갑사 경내지 청소년야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갑사 강제토지수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갑사토지수용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토지감정평가단이 현지를 조사했으며 감정평가 결과서만 나오면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제6교구본사 마곡사등 본·말사 사찰들은 내무부에 토지수용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제6교구 본말사 사찰들은 “강제지대 청소년 야

영장공사를 강행할 경우 물리력으로 막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 역시 10월 10일자로 발효된 전통사찰보존법과 환경피해분쟁법에 의해, 소속사찰과 추진하는 것을 협의해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백지화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전체 2천명중 6백여명에 前총무원장과 前주지가 보전임지정유에 동의한 것은 승인과는 내용이 달라

서 ‘일반관례상 토지수용된바가 없다’며 법률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갑사토지강제수용을 철회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 ‘3천배 참회’ 감사드립니다

동참과 격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3주년을 맞아 삼각산 도선사와 공동으로 ‘참회하는 삶을 위한 3000배 비담(願) 정진(力) 대법회’를 성료했습니다. 참회대도량 도선사에 운집한 2천여명의 불자들은 1일과 2일 이틀간 철야정진하며 공구에는 스스로를 향한 대참회와 깨달음을 받았이었습니다. 대법회 동참불자 여러분을 비롯해 현대불교 애독자 여러분과 도선사 신도님들 그리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전국의 불자들에게 우선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1년 11월 2일  
도선사 주지 동광 합장  
현대불교신문 사장 김광삼 합장

구독료납부 은행지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디피어 http://www.buddhapia.com  
구독·광고 문의 (02)737-8881  
열린마당 말사주지 공채 21면

하남 용담사 무너질 위기 23면

3천배 철야정진 현장 19면

## 수맥파차단 단열방습지 알숨 Alsom 신개발

# 알숨 Alsom은 수맥파차단과 단열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고순도의 알루미늄과 복합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최초로 개발된 수맥파차단 단열방습지 알숨 Alsom은 간편한 시공으로 수맥파를 차단하면서 단열과 습기, 독성등을 동시에 차단하는 혁신적인 신제품으로 냉·난방의 열효율을 한층높여 연료비를 현저히 절감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알루미늄단열재 생산 15년의  
경력과 기술로 신제품 개발

### 알숨 1000

■ 수맥파의 가공할 위험 차단효과!

수맥파 흐르거나 습기가 많은 대지에 건축된 집이나 사무실에서 생활하게 되면 머리가 자주 아프고 잔병이 많을뿐만 아니라 병의 회복을 방해하고 수험생의 학습장애를 일으키며 아침에 차고 일어나면 몸이 가법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의 수맥파와 습기를 차단기 위하여 본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 복사열선95%차단하는 경이적인 단열효과!

알루미늄단열재는 천공기와 복사열선을 95%차단하는 경이적인 단열재입니다. 특히, 여름철은 시원하게 겨울철은 따뜻하게 해주는 보온, 방습단열재입니다.

### 본 제품의 특성

수맥파 차단 및 방습, 방수, 방음효과 : 순도 99.6%이상 고순도 알루미늄 2겹과 이소플라트스등 복합소재 사용

단 열 : 알루미늄 불활성 복사열선 95%차단

독성 차단 : 시멘트 몰타르등의 유해성분 차단

편리한 시공 : 중추부를 인체하여 절취가 편리하고 재질이 유연하여 사용이 간편

파격적인 가격 : 알루미늄재질 사용으로 가격저렴

### 알숨 100

■ 단열과 방습만을 목적으로 사용시는 알숨 1000이 가격 저렴하여 훨씬 경제적!

제조현  
**SAWMIN** 삼민산업주식회사  
본사·공장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91-8 (시화공단 4나-109호)  
TEL : (0345)498-5533(대) FAX : (0345)498-8998

· 실용신안특허출원 제26706호 · 실용신안특허등록 제89207호 · 상표등록특허출원 제45121호

용도 신축 및 기존 건축물, 아파트, 침대 등  
**전국대리점모집**